

결혼이주여성의 사이버 공동체 사회자본에 관한 연구*



김 영 경 (대구가톨릭대학)
(yeongk@cu.ac.kr)

국문요약

본 연구는 한국의 결혼이주여성의 사이버 공동체의 사회자본 특성을 고찰하고자 경북 경산 일원에 거주하는 필리핀 출신 결혼이주여성 61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2013년 9월에서 2014년 8월까지 약 1 년간 진행되었다. 수집된 자료는 통계 패키지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일부 응답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추가적인 설명력을 가지도록 하였다.

연구의 결과 사이버 공동체 참여로부터 생성된 사회자본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결혼이주여성의 사이버 공동체에서 형성되는 사회자본 4 개 범주 가운데 높게 인식되는 영역 '신뢰', '관계', '규범' 영역과 비교적 인식도가 낮은 '정치' 부분으로 크게 이분(二分)되고 있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사회자본 요소간의 상관성을 보면 '신뢰'는 '관계', '규범'과 정의 관계를 이루고 있어 세 영역은 상호 밀접한 관계임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규범'은 '정치'와 정의 관계를 가지고 있어 구성원 간 공유되는 규칙과 행동양식이 '정치참여'를 견인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사이버 공동체 참여 특성과의 상관성이 큰 사회자본의 영역은 '관계', '규범', '정치'로 나타났으며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관계(network)는 '참여 동기(혹은 공동체 기능)', '관계소통'과 매우 높은 정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규명되었다. 사회자본 '규범(norms)'은 공동체의 '개방성'과 부의 상관성을 가지는 것으로 드러나 '개방성'이 증가함에 따른 사회 내 '규범'의 약화를 불러올 가능성을 보여주는 내용으로 주목된다. '정치'는 다른 세 가지

* 이 논문은 2013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3S1A5B5A07048386)

영역(신뢰, 관계, 규범)에 비해 그 양이 낮은 것으로 측정되었으나 공동체의 응집력 정도와 정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규명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사이버 공동체 역시 사회자본 형성과 유지에 결혼이주여성의 공동체 참여 특성이 영향을 주고 있으며 또한 공동체성과 참여 특성은 이들 결혼이주여성의 집단의 속성과 현실을 반영하고 있어서 사회자본의 발달의 바탕이 결국 결혼이주여성의 현실 사회의 집단적 정체성 및 민족적 정체성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이는 사이버 공동체를 통한 사회자본의 특성 연구가 해당 집단의 사회 적응의 투사에 대한 개연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같은 연구의 패러다임을 다양한 속성(집단적)의 이주자 집단과 공동체로의 적용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주제어 : 결혼이주여성, 사이버 공동체, 사회자본, 공동체 참여 특성

I.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연구의 필요성

근린공동체의 소실(消失)과는 달리 타 민족 집단의 배제로부터 안전과 지위를 확보하고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 가상공간에서 민족 공동체를 유지하는 소위 상상된 사이버 공동체의 사례들이 수많은 디아스포라 집단에서 확인되고 있다. 이러한 사이버 공동체는 공동체의 문화적 담론을 형성하고 협력적 행위를 촉진하고 사회적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자본인 사회자본(social capital)을 생성하고 있다. 인터넷 공간에서 공동체 구성원은 정체성을 표현하고 연결하고 실천하고 그 산물을 재생산하는 자유를 누리기도 하고 오프라인에서 약화된 애국주의적 반응들이 결집되는 민족적 공간으로 기능하여 외부와 만나게 되면 애국주의나 민족주의라는 집단적 담론에 쉽게 매몰되기도 한다. 또한 최근 이주자 사이버 공동체의 사회자본이 문화적응 과정에서 전략적으로 사용되는 메시지 기술, 문화적 인식 등 구성원 간의 문화적 커뮤니케이션과 적응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진다는 것이 선행연구에서 확인되기도 하여 이주자 사이버 공동체 사회자본의 다면적 역할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이 사이버 공동체의 사회자본은 공동체 내부 연결망의 유지와 확대를 통해 실질적인 사회적 관계의 힘과 그 효과를 보여준다. 또한 공동체의 사회자본은 공동체의 집단적 정체성을 확인하는 중요한 통로이자 구성원 개인의 사회적응 배경으로서 매우 의미 있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근린 공동체의 주체로 설정되었지만 배제와 소외를 경험하는 많은 결혼이주여성들의 사이버 공동체

사회자본에 대한 이해는 그들의 자조집단과 지지망의 형성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 적응에 대한 정보 수용 및 다양한 스케일로 표출되는 관계망의 지리적 영역까지 이해하는 첩경이라 할 수 있다. 최근 다문화주의의 한계와 다문화사회의 선도적 패러다임에 변화가 오고 사회통합을 위한 새로운 대안이 요구되고 있는 우리 사회의 현실을 감안하면 결혼이주여성의 사이버 공동체 사회자본의 특성을 설명하고 사이버 공동체 사회자본의 문화통합의 매개로서의 기능 여부를 예측하려는 본 연구는 우리 사회의 다문화성을 돌아보고 사회구조적 측면에서 이주자 공동체가 지니는 사회적 의미를 찾아가는 또 다른 제언으로 시의 적절하며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결혼 이주여성이 소속된 ‘사이버 공동체(cyber community)’를 대상으로 공동체 내부에서 생산되고 공유된 사회자본의 특성을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사회자본 요소의 양과 서로 간 관계 및 이들 결혼이주여성의 사이버 공동체 특성과 참여 활동의 경향을 파악하고 규정하며 사회자본과의 상관성을 규명하는 과정을 수반하였다.

II. 이론적 논의

1. 사이버 공동체(Cyber Community)에 관한 선행연구

사이버 공동체는 1960년대 반문화운동에서 태동되어 70년대 샌프란시스코의 컴퓨터통신 실험을 거쳐 90년대 인터넷의 확산으로 인해 새로운 형태로 발전하였다. 사이버 공동체는 가상공간이라는 추상적 공간에서 만들어진 공동체 개념에 대한 학자들의 논란을 함유하고 있는데, 이는 60년대 장소와 공동체의 합치 혹은 일치성에 대한 비판적 논의에서 비롯되었다. 즉 장소라는 기반이 마련되지 않아도 상호작용과 상호지지의 관계를 가지는 공동체의 존재에 대한 것이었다.(김영경 외 2013, 326)

초기 사이버 공동체에 대한 정의는 매체를 활용한 커뮤니케이션 관점과 사이버 공간의 공동체 형성의 관점으로 이분되며 그 가운데 후자의 경우가 사회적 현상을 포괄하고 상호작용을 기반으로 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송경재 2006, 425)

학자들의 견해에서도 이와 같은 개념은 잘 드러나는데, 라인골드(Rheingold, 1993)는 “사이버 공동체를 네트(net)로부터 나타난 사회적 집단으로 가상공간에서 많은 수의 사람들이 인간적 감정을 공유하고, 관계망을 형성하기 위해 장시간 관심사에 관한 공공토론을 수행하는 공동체”로 정의하여 상호작용을 통한 사회적 관계망의 유지가 사이버공동체의 속성임을 일갈하고 있다. 편백 외(Fernback and Tompson 1995) 역시 “주제에 관한 관심으로 형성된 경계 안에서 접촉의 반복을 통해 사회적 관계가 가상공간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라 하여 같은 맥락으로 가상공간을 정의하고 있다.

최근 학자들은 사회·문화적 맥락 속에서 사이버 공동체를 바라보려는 시각이 새롭게 대두되고 있다. 정보사회의 시민사회적인 성격으로 사이버 공동체를 규정하고자 한 서이종(2002)의 논고는 사이버 공동체의 활동기반이 현실세계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의미 있다.

사이버 예찬론자들은 가상의 공간에서 형성되는 사회관계는 공간적 접근성이나 우연함의 산물이 아닌 선택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기존의 구속적, 억압적 형태의 공동체가 지닌 한계를 극복할 수 있으며 그 구성원 역시 강한 응집력과 책임감을 가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결혼이주여성들의 사이버 공동체 사회자본 특성을 설명하기 위하여 참여 매체, 시간, 빈도, 공동체의 기능, 응집력, 개방정도 등 몇 가지 지표를 통해 공동체 참여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2. 사회자본에 대한 선행연구

부르디외(Bourdieu 1986, 11)와 콜만(Coleman 1990) 등에 의해 생성된 ‘사회자본’의 개념은 1980년대 후반 이후 다양한 사회현상에 대한 연구의 대상으로 주목되면서 매우 포괄적인 요소를 함유하는 추상적 용어로 발전하고 있으며 학자들에 의해 다양한 시각으로 정의되고 있다. 실제로 사회자본에 대한 최초의 체계적인 분석을 한 Bourdieu(1986)는 사회자본을 “지속적인 네트워크 혹은 상호 면식이나 인정이 제도화된 관계의 구성원이 됨으로서 획득되는 실제적이거나 잠재적인 자원의 총합이라고 정의하여 상호관계를 바탕으로 형성되는 자원”으로서의 개념으로 강조하였으며 콜만(Coleman 1990)은 “다양한 구조에 속한 개인들로 하여금 특정한 행위를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라 하여 개인 행위 유발자로서 기능을 강조하였다. 콜만의 기능주의 사회자본 논의가 제기된 이후부터 사회자본에 관한 논의는 사회학적 논의를 넘어 정치학, 경제학, 행정학, 심지어는 교육학 등의 다양한 연구 분야에서 그 개념이 확장, 논의되었다. 퍼트남(Putnam 1993)에 의해서 촉발된 미디어와 사회자본 간 관계 연구도 이와 같은 콜만의 기능주의적 접근과 맥을 같이한다. 퍼트남

(Putnam 2000)에 따르면 “행위의 조정을 촉진하여 사회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신뢰, 규범, 네트워크와 같은 사회 조직의 속성”이라고 사회자본을 설명하면서 공공 이슈에 대한 ‘시민적 참여 네트워크’와 ‘상호부조’와 같은 규범의 형태로 전승될 때 자발적인 협력에 의해 사회자본이 생성, 유지될 수 있음을 시사하여 사회 환경적 요인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학자들의 사회자본에 대한 시각의 차는 사회자본 개념 범주화의 요구를 가져왔으며 포테즈 외 (Portes & Sensenbrenner 1993)는 사회자본을 구성하는 요소로 연대성, 상호작용, 가치, 신뢰의 유형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사회자본 요소는 울콕(Woolcock 1998)에 의해 배태된 관계(embedded)와 자율적 관계(autonomous)로 수렴되었다. 다스굽타(Dasgupta 2005)는 사회자본의 개념을 보다 더 근원으로 내려가서 서로 협동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직면하는 사회적 문제가 무엇인지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역설하면서 ‘신뢰’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와 같이 학자에 따라 사회자본의 다양한 측면을 강조하고 있지만, 사회자본이 사람들 간에 발생하는 사회적 상호관계에 기초한다는 데에는 일치하고 있다.

사회자본을 규정하고자 하는 학자들의 다양한 목소리는 아들러 외(Adler & Kwon 2002)에 의해 사회구조라는 외부적 환경에 의한 외부적 사회자본과 행위자 개인의 자율성에 초점 맞춘 내부적 사회자본으로 재 구획(한상일 2008, 재인용)되기도 하였다. <표 1>

<표 1> 사회자본 개념 유형

영역	학 자	년 도	내 용
내적 자본	Baker	1990	행위자들이 특정한 사회구조에서 추출하여 이익을 실현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자원
	Belliveau et al.	1996	개인의 개인적 연결망, 엘리트와의 제도적 연계
	Bourdieu	1985	상호 면식이나 인정이 제도화된 관계의 구성원이 됨으로서 획득되는 실제적이거나 잠재적인 자원의 총합
	Boxman et al.	1991	자신을 지지할 것이라 예상되는 사람의 수와 그들이 활용할 수 있는 자원
	Burt	1992	재정적 자본과 인적 자본을 제공할 수 있는 친구, 동료, 지인들
		1997	연결망에서 개인적 연계의 기회들
	Knoke	1999	사회적 행위자가 다른 행위자의 자원에 접근하기 위하여 조직 내,외에서 연결망을 창조하고 동원하는 과정
Portes	1998	사회적 연결망이나 기타 구조에 편입하여 편익을 확보하는 행위자의 능력	

영역	학 자	년 도	내 용
외적 자본	Brehm & Rahn	1997	집합행동의 문제(collective action problems)를 해결하기 위한 시민들 간의 연계망
	Coleman	1990	다양한 구조에 속한 개인들로 하여금 특정한 행위를 하도록 유도하는 것
	Fukuyama	1995	집단이나 조직 내에서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능력
		1997	협력을 추구하는 집단의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비공식적인 가치나 규범의 집합
	Inglehart	1997	자발적 결사의 네트워크를 발생시키는 신뢰와 인내의 문화
	Thomas	1996	시민사회에서 개발되는 집합적 발전을 증진시키는 자발적 수단과 과정
	Putnam	1993	행위의 조정을 촉진하여 사회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신뢰, 규범, 네트워크와 같은 사회 조직의 속성
내, 외적 자본	Nahapiet & Ghoshal	1998	개인과 사회의 연결망에서 오는 실질적 자원의 총합. 사회자본은 연결망과 연결망 가동 시에 생성되는 자산의 합이다.
	Dasgupta	1988	사회 구조적 문제에 영향을 주는 구성원 간의 관계(신뢰)
	Pennar	1997	개인의 행태와 경제적 성장에도 영향을 주는 사회적 관계망
	Schiff	1992	개인 간의 관계에 영향을 주고 사회적 생산과 효용 함수의 투입요소와도 관련 있는 사회적 구조의 요인들
	Woolcock	1998	개인의 사회적 연결망에 내재된 정보, 신뢰, 호혜성의 규범

출처: Adler & Kwon(2002, 27-28; 한상일(2008, 54) 참고 재수정

3. 사이버 공동체의 사회자본에 대한 선행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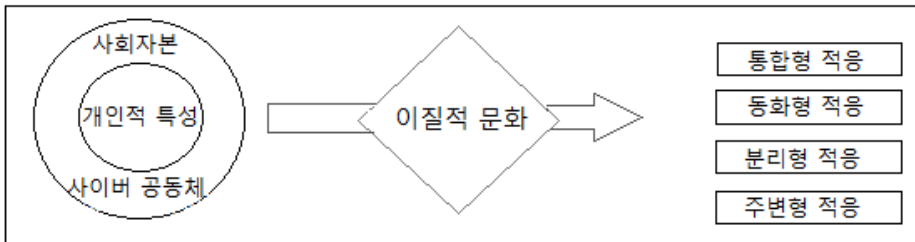
최근 전 지구적 인구의 공간적 분산으로 인한 사회적 상호소통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각 종 정보 매체의 발달로 인터넷 등 신 매체를 통한 사이버 공간 상에서 다양한 속성의 사이버 공동체가 형성되고 있다. 물리적 시공간의 구속을 받지 않는 편리함과 자유롭고 동등한 접근성을 표방하는 인터넷 등의 매체는 대인 간 만남이나 접촉의 기회를 증진시켜 오프라인 매체 환경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사회적 네트워크 형성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최근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 공동체는 근린공동체의 소실과 맞물리면서 나름 비장소적 공동체로서 특별한 의미를 지닐 것이라는 기대를 받게 되면서 학문적 관심을 유발하고

있다.

사이버 공동체의 사회자본과 관련된 기존 연구는 사이버 공동체가 장기적으로 협력과 호혜를 증진시키고 신뢰의 확대로 사회자본을 구축한다는 입장과 정보화로 인해 공동체의 와해를 가져와서 오히려 사회자본의 감소와 참여의 퇴보를 가져온다는 입장으로 나뉜다.

사이버 공동체에 대한 낙관적 입장은 정보기술의 민주적 가능성(democratic potential) 및 문화 커뮤니케이션의 매개성으로 그 가치를 평가하고 있다. 유석진(2000)은 정보화를 통해 정보의 생산·유통·소비와 관련된 거래비용 감소와 참여의 비용 감소, 그리고 정치적 사안에 대한 심의(deliberation) 가능성 증대 등을 제시하고 장용호(2002)도 한국의 사이버 공동체가 수평적인 네트워크를 가지며 신뢰와 규범의 사회자본 형성에 기여하고 있다고 증명했으며 송경재(2006)는 사이버 공동체에서도 장기적으로 신뢰, 규범, 수평적 네트워크를 가지는 사회자본이 형성되면서 정치 참여도 정비례해서 증가하며 그럼으로 인해 현실 참여의 방식을 풍부하게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정향, 김영경(2013)은 이주노동자 사이버 공동체 사회자본이 문화커뮤니케이션의 매개로서 문화적응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밝혀 사회자본의 문화적응에 대한 순기능을 표명하고 있다(〈그림 1〉 참조 요망).

그림1. 사이버 공동체 사회자본의 문화적응에 대한 영향



출처: 이정향, 김영경(2013, 327) 참고, 재수정

이런 낙관적 입장에 반해 사이버 공동체가 면대면(face-to-face) 커뮤니케이션과 커넥션(connection)을 형성할 수 없기 때문에 사회적 연대성(social solidarity)을 약화시켜 공동체 활동을 제한할 것이라고 전망하는 시각(Holmes 1997; 윤성이 2001)도 있다. 즉 현실 기반이 없는 사이버 공동체의 미약한 지속성이 사회자본의 쇠퇴를 초래하고 기존 공동체적인 질서의 해체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내다보는 시각이다.

이 외 인터넷 네트워크의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사이버 공동체가 사회자본과 시민성을

강화시키고 정치참여를 증대시킬 지에 대한 경험적인 증거는 발견되지 않는다고 주장(황용석 2001)하여 비판론과 부분적으로 맥락을 같이 하는 유보적인 입장도 있다.

이와 같은 사이버 공동체 사회자본에 대한 시각은 정보화가 주는 민주적 가능성 대 사이버 공간의 비현실적 특성이 연대감의 약화를 초래한다는 입장, 즉 근접성 여부에 따른 시각의 차로 대별되는 듯 보이나 연대감의 문제는 오늘날 근접의 근린지구 역시 당면한 문제이기도 하므로 장소, 비 장소 공동체의 본질에 관한 지속적인 학문적 접근과 비교, 관찰이 요구되는 바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주과정에서 정보 매체를 통해 공동체를 형성하고 사회 관계망을 유지하고 있는 결혼이주여성의 사이버 공동체의 사회자본의 특성을 규명하여 이들의 사회·문화적 적응 매개로서 특성을 예견해 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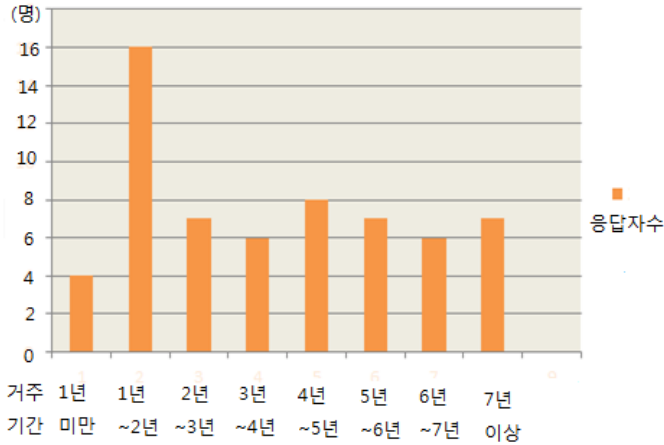
Ⅲ. 연구 내용

1. 연구의 범위 및 내용

본 연구에서의 주 연구 대상은 f-2, f-5비자로 체류하고 있는 한국의 결혼이주여성들과 그들의 ‘사이버 공동체’이다. 결혼이주여성의 사이버공동체 유형과 분포 파악을 위해 웹사이트를 활용하여 사전조사를 하였으며 직접조사를 위한 조사 대상자는 한국의 경북 경산지역에 거주하는 결혼이주여성 공동체 KFCSA, FILCOM 등의 민족 공동체와 일부 종교 공동체를 중심으로 기초표본 100명을 추출하여 진행하였으나 일부 설문조사에 응하지 않는 대상이 있었고 사이버 공동체 구성원 여부 확인 과정에서 유효 자료의 소실, 배제 등으로 최종 필리핀 출신 결혼이주여성 61명을 주 대상으로 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표본추출은 사이버 공동체 활동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과 설문 자료의 배포 및 수집, 인터뷰 등에서 비교적 자발적으로 협조해 준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으며 사이버 공동체 활동 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사이버 공동체의 개념과 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였으나 개개인에게 가입한 사이버 공동체명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은 생략하였다. 총 연구기간은 2013년 9월에서 2014년 8월까지였으며 직접적인 현장 조사기간은 2014년 2월에서 6월로 약 5개월이었다.

조사대상이 한국에 거주한 기간은 그림 2와 같이 1년 미만과 1년에서 2년 사이를 제외하면 골고루 분포하고 있다.

〈그림 2〉 응답자의 한국 거주 기간별 분포



주된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결혼이주여성이 활동하는 사이버 공동체의 기능, 응집성, 개방성 등의 공동체 성(Warren, R.B. and Warren, D.I., 1977)과 참여 형태 등에 따른 공동체의 활동 특성 파악

② 결혼이주여성의 사이버 공동체의 사회자본 특성 규명

이러한 연구 수행을 위해 변수의 계량화가 요구되므로 공동체의 기능, 공동체 내부 구성원들과의 관계, 외부와의 개방성 및 참여 특성(매체, 기기, 빈도, 시간 등)과 사회자본에 대한 신뢰, 규범, 정치(참여)를 변수로 채택하여 도구화하였다.

사회자본은 각 사회자본 영역을 잘 나타내는 하위체계를 각 3 개씩 설정하여 변수로 삼았다. 각 하위영역을 보면 ‘신뢰’는 교류빈도, 연대감, 만족감, ‘관계’는 의사결정 과정의 민주성, 관계의 평등성, 오프라인 존재 여부 등을 설정하여 알아보고자 하였다. ‘규범’은 명문화된 회칙, 위반에 대한 제재나 벌 유무, 내부의 다툼 유무를 하위체계로 설정하였으며 ‘정치’는 선거, 항의 시위, 서명 등의 국가적 차원, 공동체 문제에 참여하여 온라인 상 글쓰기, 모금 참여하기 등의 영역으로 재구성하였다.

2. 연구방법

사이버공동체가 생산하는 사회자본 측정을 위해 공동체 구성원인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통합설문지(Integrated Questionnaire for the Measurement of Social Capital)를 연구에 적합하도록 재구성하고 표본은 각 유형의 공동체 내에서 임의 추출 방식으로 선정하였으며, 공동체 활동 행태와 참여 특성(Bulmer 1986, 26-40)등에 대한 심층 인터뷰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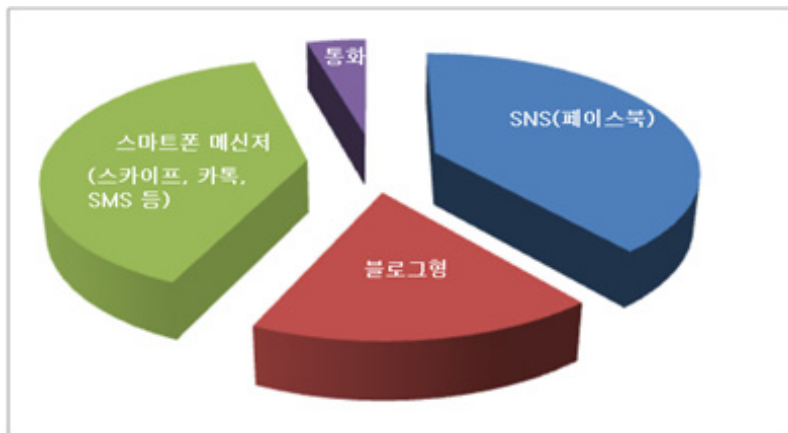
함께 실시하여 보완하도록 하였다. 설문문의 구성은 일반 속성 질문 문항과 중복 답변을 기입하도록 한 참여 특성 문항, 공동체의 사회자본 특성을 알아보기 위한 5점 척도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설문 조사방법은 직접조사에 의한 자기평가기입방식(self-administration method)을 적용하고 자료의 정량적 측정과 분석은 SPSS 21.0 통계 패키지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결혼이주여성의 사이버 공동체 참여의 일반적 특성은 산술적 분석을 통해 파악하고 사회적 자본과 각 속성과의 인과 관계를 규명하는 데는 요인분석 및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사용하였으며 사회자본 인식에 대하여 문항 구성 신뢰도를 구하기 위하여 t-검증을 실시하였다. 변인들 간의 유사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ALSCAL 분석방법을 사용하였으며 변인들 간의 유사성 정도를 거리척도로 나타내기 위하여 다차원 척도(Multidimensional Scaling Analysis) 분석을 하였다.

IV. 결혼이주여성의 사이버 공동체 사회자본 특성

1. 결혼이주여성의 사이버 공동체 참여 특성

중복 응답한 응답자의 사이버 공동체 참여 매체 분포를 보면 SNS와 스마트폰 메신저가 동물로 가장 많이 이용하는 매체이며 그 다음이 블로그형이고 가장 낮은 이용률을 보인 것이 휴대폰을 이용한 직접 통화이다. SNS 매체에서는 특히 페이스북만을 이용한다고 하여 흥미롭다.

〈그림 3〉 응답자의 사이버 공동체 참여 매체 분포



이들이 활동하는 사이버 공동체의 규정은 Rheingold, Fernback and Thompson 등의 학자들이 정의한 개념을 조합하여 “주제와 관심에 따른 경계(net)를 가지고 통신망상에서 지속적인 만남과 토론을 수행하는 사회적 집단”으로 하였으며 참여 매체로는 사회적 관계의 개념을 인터넷상으로 가져온 것으로 개인 대 개인 간 관계 맺기를 통해서 네트워크 형성을 지원하는 온라인 인맥 구축 서비스로서 SNS와 가입절차를 가지고 자격을 얻어서 공동체 구성원으로 활동 가능한 온라인 커뮤니티 를 구분하였고 스마트폰과 휴대폰의 메신저(카톡 등)는 따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SNS의 포괄적 개념을 적용하지 않은 것은 개인의 일방적인 정보 공개보다는 다른 사람과 관계를 형성, 확장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SNS 고유의 기능과 회원의 가입 권유(초대) 없이 해당 SNS 이용이 불가능하며, 사용자는 기존 회원과 유대 관계를 맺거나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폐쇄형(블로그형) 기능을 차별화하기 위함이다.

결혼이주여성들의 자발적인 사이버 공동체의 기능을 알아보기 위해 설문과 함께 인터뷰를 실시한 결과 대부분의 구성원들은 사이버 공동체 활동의 주된 동기가 친목과 소통, 교류를 위한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매일 일상적 대화를 통해 함께 살아간다는 사실을 확인해야 안심이 된다.”는 한 여성의 말은 사이버 공동체 참여 동기가 구성원 간 관계소통의 기능에 무게를 두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설문에서도 같은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일상의 인간관계의 본질이 대화의 내용보다는 상호작용의 연속선상에 있음을 보여주는 ‘스몰토크’(Duck 1994, 45-60)의 기능이 이들 사이버 공동체에서 참여 이유로 고려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요구되는 부분이며 이들의 사이버 공동체 활동이 주로 개인과 개인 간 소통에 SNS를 통해 유지되고 있음 역시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러한 공동체 참여 동기에 관한 특성이 이들이 주로 소통 도구로 사용하는 ‘페이스북’의 친교 네트워킹에 유리한 점(최선미 2009, 70)과도 무관하지 않음을 고려할 때, 공동체 구성원들의 속성과 사용 매체, 의사소통의 양과 연계성, 대화의 수위 등과의 관계에 관한 심층적인 연구 역시 이들의 사회자본의 형성 연구에서 수반되어야 할 과제로 예측된다.

가입자 수가 비교적 많은 폐쇄형 매체(블로그형)에 대한 면접 질문에서 이들은 대개 공적 기관이나 센터에서 정보를 얻기 위해 활용한다고 하여 비교적 타율적인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또한 일주일에 한번 정도 방문하는 곳으로 응답하는 사람이 많아 그 참여 빈도가 낮음을 알 수 있다.

공동체 구성원과 관계는 이들의 공동체 참여 특성을 잘 설명하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집단적 정체성을 공유하는 사이로 참여한다고 하여 구성원 간 응집력이 매우 강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들 공동체 관계망이 대부분 모국 출신을 중심으로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필리핀 친족관계(kinship) 특징이 투영되는 내용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이는 또한 공동체의 개방성과도 관련되는데, 송신자와 수신자가 모두 필리핀 여성들일

경우가 93.4%로써 공동체 활동의 개방성 정도는 매우 낮아 외부(타인)와 소통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공동체의 응집력과 맥락을 같이 하는 요소로 볼 수 있다.

공동체 참여 기기(도구)로는 스마트폰이 93.4%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휴대폰이고 컴퓨터를 통한 참여는 전무하다. 실제 공동체 구성원들은 면담에서 컴퓨터는 사용법을 모르거나 개, 폐시 장소적, 시간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대답하는 경우가 많아 사이버 공동체 참여에서 '컴퓨터의 불편함'이 기피하는 이유로 꼽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참여빈도는 매일 참여하는 사람이 45.9%이며 다음이 주 1회, 주 3회 이상의 순으로 비교적 잦은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참여시간은 30분 이내인 경우가 86.9%로 가장 많으며 한 시간 이상 참여하는 경우는 전무하다. 참여 빈도, 참여 시간 역시 이들의 공동체 참여 동기와 주로 사용하는 매체의 특성과 긴밀한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부분이다.

〈표 2〉 결혼이주여성의 사이버 공동체 참여 특성

참여 동기	관계소통	93.4(57)%	참여 기기	컴퓨터	0(0)%
	관계협업	0(0)%		스마트폰	93.4(57)%
	공유소통	0(0)%		휴대폰	6.6(4)%
	공유협업	6.6(4)%		기타	0(0)%
구성원 관계	아는 사이	0(0)%	참여 빈도	매일	45.9(28)%
	사교적인 사이	5(3)%		주 3회 이상	14.8(9)%
	의사소통하는 사이	0(0)%		주 1회	31.1(19)%
	참여하는 사이	0(0)%		월 1회	8.2(5)%
	집단적인 정체성 공유	95(58)%		기타	0(0)%
외부와의 연결성	폐쇄적	93.4(57)%	1회 참여 시간	30분 이내	86.9(53)%
	개방적	0(0)%		30분~1시간	13.1(8)%
	기타	6.6(4)		1시간~2시간	0(0)%
참여 매체 (중복)	SNS	90.1(55)		2시간이상	0(0)%
	블로그형	41.0(25)			
	스마트폰 메신저	90.1(55)			
	휴대폰	9.8(6)			

이상 경북 지역 거주 결혼이주여성의 사이버 공동체 활동을 정리해 보면, 이들은 주로 스마트폰을 이용, SNS, 특히 페이스북과 1인 커뮤니케이션 매신저인 카톡, 스카이프 등 매체를 통해 친족, 친구 등 동일 지역 출신들과의 소통을 매우 적극적으로 하는 등 관계소통을 위해 참여하고 있으며 외부와의 개방성은 낮은 특성을 지니고 있다. 피해 구제 등 특정 목적의 상담소 혹은 모임의 부차적 기능을 담당하는 온라인 공동체의 구성원으

로서는 비교적 소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으며 1회 이용시간은 30분 이내가 많으며 주 1회 이상 참여가 전체 응답자의 90%를 넘고 있어 참여 빈도가 비교적 잦은 것으로 나타났다.

2. 결혼이주여성의 사이버 공동체 사회자본 특성

신뢰(trust), 관계(network), 규범(norms), 정치(politics) 4 개의 사회자본 범주에 대한 각각 3 개의 하위체계를 설정하여 그 중요성 정도를 알아보았다. 응답자의 인식은 Likert식 5점 척도로 나타내었으며 점수가 높으면 해당 사회자본 영역의 중요도를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사회자본 하위문항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신뢰 .847, 관계 .844, 규범 .923, 정치 .557 로 나타나 신뢰, 관계, 규범 영역에서는 매우 높았으며 공동체 참여 특성의 각 요인의 사회자본에 대한 설명력을 알아내기 위한 요인분석 결과 구형성에서 해석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인별 문항구성과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표 3>과 같다.

<표 3> 사회자본 하위 문항 신뢰도 계수

분류	문항번호	문항수	Cronbach's α
신뢰	30,31,32	3	.847
관계	33,34,35	3	.844
규범	37,38,39	3	.923
정치	40,41,42	3	.557

결혼이주여성의 사이버 공동체 사회자본 4 개 범주에 대한 전체 응답에 대해 분석한 결과 신뢰, 관계, 규범의 양은 높으나 정치참여 부분은 상대적으로 그 양이 적어 '정치'는 사회자본 중 낮게 인식되는 영역으로 나타났다. <표 4> 이와 같은 결과는 결혼이주여성들의 사회자본이 신뢰, 관계, 규범의 차원에서 정치참여로의 이행에서 어려움을 보여주는 것으로 사회 환경적, 개인적 요인이 잠재하고 있다는 것을 짐작하게 하는 내용이다.

<표 4> 사이버 공동체 사회자본의 양

구분	신뢰					관계					규범					정치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척도값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	0.0	1.6	11.5	1.6	85.2	0.0	1.6	0.0	18.0	80.3	1.6	1.6	0.0	18.0	78.7	1.6	23.0	54.1	21.3	0.0

사회자본 4 영역에 대한 MDS 분석¹⁾은 이러한 특성을 명확히 설명하고 있다. MDS 분석에서 제시된 변인들 간의 지각된 유사성 정도를 간격척도로 측정하여 ‘유클리디언 거리’에서의 설명력을 가지는데 필요한 ‘행렬 조건’의 2차원 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의 적합도를 증가시키기 위해 반복에 따른 스트레스 개선 값이 0.0001보다 작을 때 반복과정을 중지하도록 설정하였고, 최소 S-스트레스 수렴기준을 0.001로 설정하였다. 3회의 반복 실행 후 스트레스 개선 값이 0.00020로서 0.001보다 낮아 실행을 완료하였다.

분석결과 스트레스 값은 0.03991으로 모형의 적합도가 좋았으며, 회귀분석에서의 R2과 유사한 개념으로서 MDS로 변환된 자료가 전체 분산을 설명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결정계수 (RSQ) 또한 0.99774을 나타내고 있어 모형의 설명력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5〉

다차원 척도 모형에서 살펴보면 사회자본 ‘신뢰’, ‘관계’, ‘규범’은 매우 유사한 본질로 인식하고 있으나 ‘정치’부분은 이들 공동체 사회자본 영역으로 다소 다른 세 영역과는 다른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표 6〉 〈그림 4〉

〈표 5〉 사회자본 4 개 영역 적합도

Iteration	S-stress	Improvement
1	.01337	
2	.01022	.00315
3	.01002	.00020

Stress = .03991 RSQ = .99774

1) 스트레스 값은 MDS 모형에 의해서 설명되지 않는 분산의 불일치 정도로서 대상들 간의 실제거리와 추정된 거리사이의 오차를 의미한다. MDS의 계산은 스트레스를 최소화하기 위한 최적화(최소제곱 단조회기 ; least squares monotone regression - 가우스, 뉴턴 등)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얻어진다. 스트레스는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지며 추정거리와 실제거리가 완전히 일치하면 0이 된다. 스트레스 값이 작을수록 추정거리의 적합도는 높으며, Kruskal 적합도에 대하여 제시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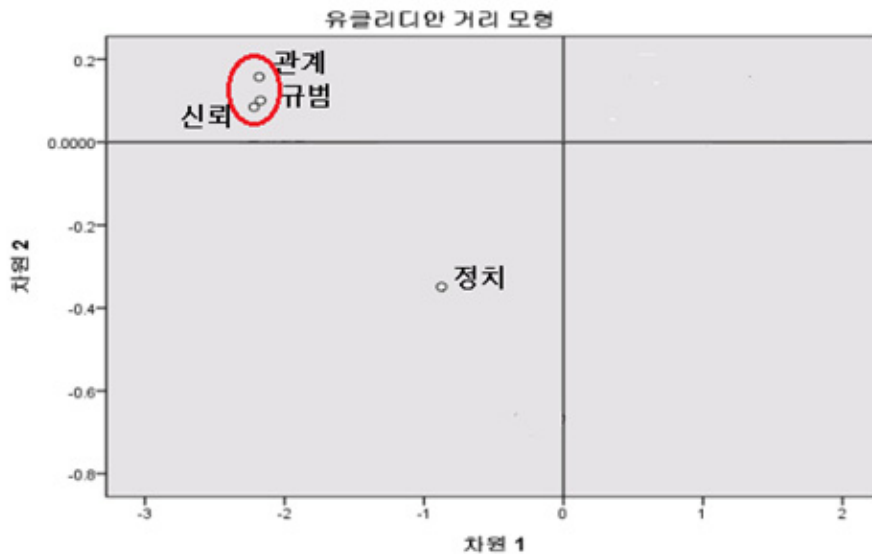
〈Kruskal 적합도 기준〉

스트레스 값	적합도 평가
0.2 이상	매우 나쁘다
0.2	나쁘다
0.1	보통이다
0.05	좋다
0.025	매우 좋다
0	완벽하다

〈표 6〉 사회자본 4개의 영역에 대한 다차원 척도

Stimulus Name	1차원	2차원
신뢰	-2.2180	.0848
관계	-2.1823	.1576
규범	-2.1723	.1008
정치	-.8737	-.3491

〈그림 4〉 사회자본 4 개 영역 간 거리



사회자본 4 개 각 영역과 공동체 참여 특성 간 상관의 정도는 다음과 같다.

사이버 공동체 참여 특성과의 상관성이 큰 사회자본의 영역은 ‘관계’, ‘규범’, ‘정치’로 볼 수 있다.

사회자본 관계(network)는 참여 동기(혹은 공동체 기능) ‘관계소통’과 매우 높은 정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계 즉 네트워크는 사람들과 사건 등으로 구현되는 결절(노드)의 집합체로 공동체의 사회관계와 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이다. 문제에 대한 의사 결정 과정이 민주적인지, 구성원은 서로 수평적인 관계인지, 온라인 외에서의 모임도 가능 여부 등은 네트워크를 규정할 수 있는 기준이다. 특히 본 연구에서 구성원의 관계소통은 공동체의 다른 기능보다 사회자본 ‘관계’와 유의미한 정의 관련성을 가지는 것으로 규명되고 있다. 이는 관계협업이나

공유의 기능 보다 의사소통의 기반인 상호적으로 파장을 아우르는 사회적 관계가 사회자본의 '관계'성을 증대시킨다고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달리 사회자본 '규범(norms)'은 공동체의 개방성과 부의 상관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규범은 서로 나누거나 교환의 호혜적인 행동양식으로 집단 내 공유된 표현, 기호(symbol)을 나타낸다. 이러한 기호로는 명문화된 회칙, 위반 시 처벌 규정이나 조항을 공유하는지, 내부의 언쟁이나 다툼에 대한 해결 방안 등을 들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외부와 개방될수록 '규범'은 오히려 약화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공동체의 기능 가운데 '외부로 열림' 즉 개방성은 공동체의 자족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속성인데, 이러한 개방성이 증가함에 따른 사회 내 '규범'의 약화를 경험할 가능성을 보이는 것으로 매우 이채롭고 주목된다. 이는 응답자의 대부분이 결혼이주여성으로 한국사회에서 느끼는 차별정서의 반영일 수 있다는 조심스런 해석을 해 본다.

정치참여(political participation)의 범위는 최근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는 영역으로 세계 시민으로 성숙 지향으로 폭 넓게 해석되기도 하고 개인의 이해관계에 대한 조정, 의견 개진, 의사 반영 등 협의의 개념으로 수용하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적 차원에서의 정치참여와 개인의 범위에서 세 가지 지표로 본 영역의 특성을 확인하였다. 세분화하면 국가적 차원에서 선거, 항의시위, 서명 참여를, 개인의 차원에서 공동체 내부 문제에 대한 의사 결정에서의 참여, 온라인 영역에서 글쓰기(댓글달기) 등의 추정 지표들이다. 분석 결과 '정치'는 다른 사회자본 세 영역(신뢰, 관계, 규범)에 비해 그 양이 현저히 낮으며 사이버 공동체의 응집력과는 정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규명되었다. 이는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자본 형성과 유지의 특성을 잘 보여주는 것으로 이들의 한국 사회에서의 적응에서 우선적으로 꼽는 것이 민족의 정서적 유대감이며 정치적 상황에 대한 인식과 행동은 그 이면의 것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한편 이들의 '정치'영역은 공동체 응집력과의 상관성(.683**)이 매우 높아서 응집력이 강해지면 사회의 성원 대다수의 정치적 논의와 참여가 가능함을 예시하고 있으나 인터뷰에 응한 결혼이주여성들은 그들의 경제, 사회적인 지위 때문에 광의적 정치(참여)는 실제 매우 힘들다고 토로함으로써 정치참여의 '평등성'과 사회적 지위 향상이 함께 추구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사회자본 요소간의 상관성을 보면 '신뢰'는 '관계'와 '규범'과 정의 관계를 이루고 있어 세 영역은 상호 간 밀접한 관계임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규범은 '정치'와 정의 관계를 가지고 있어 구성원 간 공유하는 규칙과 행동양식이 '정치'와 관련성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외 공동체 참여 특성을 나타내는 요소 간의 상관관계를 보면 다음과 같다.

참여시간과 참여빈도가 상관성이 높아 참여시간이 늘면 빈도도 상승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참여시간은 관계소통과도 상관성이 높아 참여시간이 증가하면 관계소통이 향상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또한 스마트폰과도 정의 상관성을 보여 스마트폰 사용이

증가하면 관계소통 역시 향상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관계협업과 공유소통 역시 상호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관계협업의 향상을 위해 공유소통의 과정을 수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구성원과의 관계에서 응집력은 관계소통에 정의 영향을 주는 요소로 나타났으며 이에 비해 외부와의 개방성이 낮을수록 즉 폐쇄성이 클수록 구성원과의 관계소통과 공유협업은 오히려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매우 이례적이다.

〈표 7〉 사이버 공동체 사회자본과 참여 요소 간 상관성

	컴퓨터	스마트 폰	참여 빈도	참여 시간	관계 소통	관계 협업	공유 소통	공유 협업	응집성	개방성	신뢰	관계	규범	정치
컴퓨터	1	.256	-.180	.079	.203	.074	.109	.273	-.006	.315	-.096	-.088	.056	.218
스마트폰		1	.192	.293	.484**	.147	.216	.274	.154	.152	.345	.117	.192	.161
참여빈도			1	.622**	.422*	-.175	-.197	.244	-.085	.202	-.068	-.160	-.121	.407*
참여시간				1	.536**	-.077	-.112	.268	.263	.318	-.122	-.273	-.232	.372*
관계소통					1	.071	.105	.286	.555**	-.617*	-.057	.626**	-.217	.248
관계협업						1	.681**	-.018	.246	-.236	.057	-.057	.062	-.099
공유소통							1	.170	.243	-.068	-.021	-.083	-.023	-.255
공유협업								1	.061	-.395*	.057	.085	.015	.347
응집성									1	-.425*	-.026	.101	-.190	.683**
개방성										1	.002	.028	-.684*	.238
신뢰											1	.799**	.714**	.456*
관계												1	.622**	.432*
규범													1	.495**
정치														1

V. 결론

본 연구는 한국의 결혼이주여성의 사이버 공동체의 사회자본 특성을 고찰하고자 경북 경산 일원에 거주하는 필리핀 출신 결혼이주여성 61명을 대상으로 2013년 9월에서 2014년 8월까지 약 1 년간 진행되었다. 연구 기간 중 2013년 9월에서 2014년 1월까지의 실내작업을

수행하고, 2014년 2월부터 6월까지 약 5 개월은 현장조사로 인터뷰와 설문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1.0 통계 패키지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일부 응답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추가적인 설명력을 가지도록 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결혼이주여성의 사이버 공동체 참여 특성을 보면,

결혼이주여성들은 사이버 공동체의 매체로 SNS 페이스북과 스마트폰 메시지를 선호하고 있으며 소통도구로는 스마트폰을 선호하고 있다. 사이버 공동체 활동의 주된 동기는 친목과 소통, 교류를 위한 것이라고 응답하여 사이버공동체의 주 기능을 ‘관계소통’으로 인식하고 있다.

폐쇄형 매체(블로그형)은 공적 기관이나 센터에서 정보를 얻기 위해 활용한다고 하여 비교적 타율적인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그 참여 빈도도 낮은 편이다.

구성원 간 응집력이 매우 강한 특성을 가지며 외부와의 개방은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나 공동체 활동이 극히 폐쇄적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러한 사이버 공동체 참여로부터 생성된 사회자본의 특성에 대해 살펴보면,

결혼이주여성의 사이버 공동체에서 사회자본은 인식도가 높은 ‘신뢰’, ‘관계’, ‘규범’ 영역과 비교적 인식도가 낮은 ‘정치’ 부분으로 크게 이분(二分)되고 있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이들의 인구학적, 사회 구조적 정체성과 공동체 참여 특성과의 관련성에서 비롯된 결과로 추정되어 보다 세밀하고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사회자본 요소간의 상관성을 보면 ‘신뢰’는 ‘관계’, ‘규범’과 정의 관계를 이루고 있어 세 영역은 상호 밀접한 관계임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규범’은 ‘정치’와 정의 관계를 가지고 있어 구성원 간 공유되는 규칙과 행동양식이 ‘정치참여’를 견인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사이버 공동체 참여 특성과의 상관성이 큰 사회자본의 영역은 ‘관계’, ‘규범’, ‘정치’로 나타났으며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관계(network)는 ‘참여 동기(혹은 공동체 기능)’, ‘관계소통’과 매우 높은 정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규명되었다. 사회자본 ‘규범(norms)’은 공동체의 ‘개방성’과 부의 상관성을 가지는 것으로 드러나 ‘개방성’이 증가함에 따른 사회 내 ‘규범’의 약화를 불러올 가능성을 보여주는 내용으로 주목된다. ‘정치’는 다른 세 가지 영역(신뢰, 관계, 규범)에 비해 그 양이 낮은 것으로 측정되었으나 공동체의 응집력 정도와 정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규명되었다. 그러나 실제 인터뷰를 통해 이들은 그들의 경제, 사회적 지위 때문에 ‘정치참여’는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토로함으로써 정치참여의 ‘평등성’과 사회적 지위 향상이 이들이 느끼는 정치의 중요한 요건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 부분은 이들이 사회자본 영역 가운데 ‘정치’ 영역을 가장 낮게 인식하고 있는 내용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이상에서 본 연구의 결과에서 ‘정치’와 그 외에 다른 세 개의 사회자본이 크게 2 개로

분화된다는 점, 집단적 정체성과 공동체 참여 특성이 공동체의 사회자본에 투영되고 있다는 점, 사회자본 '규범'이 공동체의 '개방성'과는 오히려 부의 관계인 점, 사회적 지위 등의 장애 요인과 '정치'의 능동적 생산 혹은 발현과의 관련성이 예측되는 점 등이 유의미한 부분들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사이버 공동체 역시 사회자본 형성과 유지에 결혼이주여성의 공동체 참여 특성이 영향을 주고 있으며 또한 공동체성과 참여 특성은 이들 결혼이주여성의 집단의 속성과 현실을 반영하고 있어서 사회자본의 발달의 바탕이 결국 결혼이주여성의 현실 사회의 집단적 정체성 및 민족적 정체성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이는 사이버 공동체를 통한 사회자본의 특성 연구가 해당 집단의 사회 적응의 투사에 대한 개연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같은 연구의 패러다임을 다양한 속성(집단적)의 이주자 집단과 공동체로의 적용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자의 연구(김영경 외, 2014) 외에 몇몇 연구에서 동일한 민족 공동체 집단일지라도 공동체 형태에 따라 사회자본의 차이가 보고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사이버 공동체 별 사회자본 특성에 관한 비교 연구 역시 본 연구의 후속연구로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이러한 유의미한 결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몇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먼저 연구대상의 대표성 문제이다. 사이버 공동체 활동 여부에 국한한 표집의 결과로 특정 국가 출신과 일부지역 거주자들로 한정하였으므로 편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상황 혹은 현상을 파악하기 위해 객관적 계량 과정에 중점 두었기 때문에 현상의 원인과 과정에 접근하고 정교한 설명력을 제시할 수 있는 질적 연구가 다소 미흡하였다.

이러한 문제는 후속연구에서 충분히 보완되어야 하며 본 연구에서 나타난 이례적이고 주목되는 결과에 대해서는 정교하고 심층적인 연구가 그것과 함께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 김영경, 이정향. 2013. “한국 이주 노동자의 ‘사이버 공동체’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지리학회지』 9(2), 324-339.
- 이정향, 김영경. 2014.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자본에 관한 연구- 필리핀 결혼이주여성의 근린공동체를 중심으로-.” 『한국지역지리학회지』 20(2), 163-175.
- 서이중. 2002. 『인터넷 커뮤니티와 한국사회』. 서울: 한울아카데미.
- 송경재. 2006. “자발적인 시민참여 사이버 공동체의 사회적 자본에 관한 사례연구.” 『사이버커뮤니케이션 학보』 19, 221-255.
- 유석진. 2000. “정보화와 21세기 한국정치.” 『국가전략』 6(2).
- 장용호. 2002. 『사이버공동체 형성의 역동적 모형』. 서울: 집문당.
- 최선미. 2009. “SNS의 사회자본 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싸이월드 미니홈피 특성을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한상일. 2008. “사회적 자본과 공동체 참여의 관계에 관한 국제비교”.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0(2), 49- 75.
- 황용석. 2001. “인터넷 이용과 정치참여에 대한 탐색적 연구- 제16대 총선 기간 동안 인터넷 정치 사이트 이용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회보』 45(3). 421-456.
- Adler, P. S. & Kwon, S. 2002. “Social Capital: Prospects for a New Concept.”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27(1), 17-40.
- Bourdieu, P. 1986. “The Forms of Capital.” in J. G. Richardson, (ed)., *Handbook of Theory and Reach for Sociology of Education*. Westport. CT: Greenwood Press.
- Bulmer, M. 1986. *Neighbours: The Work of Philip Abrams*. Cambridge University Press. and *Research of the Sociology of Education*. New York: Greenwood Press.
- Coleman, J. S. 1988. “Social Capital in the Creation of Human Capital.”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4, 95-121.
- Dasgupta, P. 2005. “Economics of Social Capital.” *Economic Record* 81, 2-21.

- Duck, S. 1994. "Steady as (s)he goes: Relational Maintenance as Shared Meaning System." In Canary, D. J. & Stafford, L. (Eds.), *Communication and Relational Maintenance*. New York: Academic Press, 45~60.
- Fernback, Jan and Thompson, Brad. 1995. "Virtual Communities: Abort, Retry, Failure." International Communication Association, Albuquerque, New Mexico.
- Portes, A. & Sensenbrenner, J. 1993. "Embeddedness and Immigration: Notes on Social Determinants of Economic Action."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8, 1320-1350.
- Putnam, R.D. 1993. *Making Democracy work : Civic Traditions in Modern Ital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Putnam, R.D. 2000. 『사회적 자본과 민주주의』. 서울: 박영사.
- Rheingold, H., 1993. *The Virtual-Community: Homesteading on the Electronic Frontier*. Addison-Wesley Publishing Company.
- Warren, R.B. and Warren, D.I. 1977. *The Neighbourhood Organizer's Handbook*, Indiana.: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 Woolcock, M. 1988. "Social Capital and Economic Development: Toward a Theoretical Synthesis and Policy Frame Network." *Theory and Society* 27, 151-208.

● 투고일 : 2015. 5. 5. ● 심사일: 2015. 5. 6. ● 게재확정일: 2015. 5. 14.

**A Study on the social capital of married immigrant women's
cyber community
- Focusing on Filipino cyber communities -**

Kim, Yeong Kyeong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This study was aimed to investigate the properties of the social capital in cyber communities of married immigrant women in Korea. The study period was from September 2013 to August 2014 and data was collected in parallel with the survey interview. Analysis of the data was used for statistical programs, SPSS 21.0.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look at the characteristics of community participation as the basis of social capital as follows: immigrant women may prefer a smart-phone messenger and SNS Face-book as a media of cyber community and preferred a smart-phone as communication tool. They are aware of the main features of the cyber community as “communication relationship”. Their cyber community has a very strong cohesive properties as well as the external doors are closed firmly.

It shows that ‘trust’, ‘relationships’, ‘norm’ factors recognized highly but ‘political participation’ factor recognized relatively low in four categories of social capital and they are separated by the members in the cyber communities. They differentiate between ‘politics’ and other parts. This implies a more detailed and in-depth research is needed. And that cyber community characteristics and participation ‘relationship’, ‘norm’, ‘politics’ is greater correlation is emerge. It has been identified that ‘relationship (network)’ and ‘communication relationship’, have a very high positive correlation. But

‘politics’ is measured the quantity less than the other three areas (trust, relationships, and norms), but it have been identified that ‘politics’ is a positive correlation with the cohesion degree of the community. We can infer that the higher the cohesion,

the higher 'politics' participation. However, through the actual interview, they say 'politics' is very difficult because of their low social and economic status. It represents the improving between social status and the 'equality' of political participation must be pursued together.

In the results of the study, several significant ways are identified. The first, 'politics' and the other three social capital is largely divided into two categories, collective identity and characteristics of the community are projected in social capital, relationship social capital 'norms' and 'openness' is negative, and social status and the activeness of political participation are deep-related, etc. But there are a few problems such as representativeness problems, the lack of qualitative research and detailed description, etc. These problems will be sufficiently complementary in subsequent studies.

<Key words> Married Immigrant women, Cyber Community, Social Capital, Characteristics of Community Participation